

‘자기’의 용법 확대와 언어변화 개신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 대구 지역어를 대상으로

홍미주

(경북대 교양교육센터 강의초빙교수)

Abstract

Hong, Miju. 2019. "Extended Usage of 'jagi' and the Role of Women as Linguistic Innovators in the Daegu Area".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7(3), 279-305.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ded usage of 'jagi' to analyze to what extent and in what contexts 'jagi' is being used, and assesse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it. Furthermore, this paper discuss the role played by women in the extended usage of 'jagi'.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17 adult males and females living in Daegu have been surveyed. The results of the survey have been analyzed to identify speakers' knowledge of and attitude toward 'jagi'.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agi' is used as an intimate term of address for spouses and couples. More recently, it has also been used as a term of address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who are not involved in such relationships. Second, the typical usage of 'jagi' is its use among same-age women or lower class female speakers. Third, while many of the users of 'jagi' are women, there also are men using it. Fourth, the use of 'jagi' by younger speakers when speaking to older interlocutors is not an accepted usage. Fifth, the way men perceive and use 'jagi' differs from the way women do. For male speakers, there is no gender distinc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when using 'jagi', whereas women perceive it as being most commonly used by female speakers. Sixth, the use of 'jagi' has been extended from female to male speakers. More specifically, the new usage of the word was first advocated by women, who then played a key role in changing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554).

the use of 'jagi'.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speakers for 'jagi' can be considered within two different dimensions. On the one hand, the use of 'jagi' as an equivalent to the second-person pronoun by couples was extended to its usage as a general second-person pronoun by other types of interlocutors. On the other hand, if 'jagi' was initially mostly used by and among female speakers, the range of users was extended to male speakers and listeners.

Keywords: 'jagi', women, extended usage, language change, linguistic innovator

1. 서론

'자기'는 보통 재귀 대명사, 일반 명사, 부부나 젊은 연인 사이에서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자기'가 연인이나 부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도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폭넓게 관찰된다.

- ㄱ. 자기는 어제 뭐 했어? (40대 여성이 30대 여성에게)
- ㄴ. 자기야, 어제 결제한 서류 자기한테 내가 줬어? (30대 여성이 동료 여성에게)

연인이나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로 사용되는 위와 같은 '자기'의 용법은 최근에 관찰되는 것으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여성인 경우에 대화에서 친밀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의 전형적인 용법은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남성 화자도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관찰된다.

- ㄷ. 자기야, 그런 이야기는 나한테 먼저 해야지. (40대 남성 선배가 30대 남성 후배에게)
- ㄹ. 김 대리, 그 업체는 자기가 좀 방문해라. (40대 남성 사장이 30대 남성 부하 직원에게)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청자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 화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남성 청자에게 호칭어와 지칭어로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는 부부나 젊은 연인 사이에서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용법에서 확대되어,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도 사용되고,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것이 남성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발달되는 양상을 보인다.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의 사용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가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여성이 여성 동료, 남성 동료, 하위자 여성에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는 여성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 남성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게다가 여성 하위자가 여성 상위자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관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¹⁾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자기’에 대한 화자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여, ‘자기’의 용법 및 용법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용법 확대에 여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자기’는 여러 용법으로 쓰이는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자기’의 용례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정지현 2015: 162).²⁾

- ㄱ. 철수는 영이에게 자기를 미워하느냐고 물었다.(김미형 1995)
- ㄴ. 짝사랑은 짝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좋다. 자기 가슴 속에서만 시작되어서 자기 가슴 속에서만 끝나야 하는 것이 짝사랑이다. … (김미형 1986)
- ㄷ. 자기야, 있다가 오후 다섯 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 알았지?(강연임 1996)

1) 이하 논의에서 지칭하는 ‘자기’는 부부나 연인이 아닌 관계에서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를 의미한다. ‘자기’의 호칭어, 지칭어로서의 사용을 모두 포함한다.

2) ㄱ~ㄷ의 예문은 정지현(2015: 162)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 자기가 오늘 숙직이지? 나 먼저 가. 내일 봐. 수고!(강연임 1996)

ㄹ은 기존의 대명사 연구에서 주로 다뤄 온 재귀 대명사로서의 ‘자기’이다. ㄹ은 재귀성 없이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일반명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ㅅ은 2인칭 대명사로서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에 사용된다. ㅇ은 연인 또는 부부 이외의 사이에서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것이다(정지현 2015: 162).

‘자기’의 용법 및 호칭 체계와 관련된 논의 중 송병학(1982), Park(1992), 이익섭(1994/2000), 강연임(1996) 등에서 ‘자기’가 2인칭 대명사로서 연인 사이 또는 부부 사이에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인 또는 부부 이외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용법에 대해서는 Park(1992), 박정운·채서영(1999), 양영희(2006) 등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정지현(2015)에서는 국어교육적 관점에서,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인 또는 부부 이외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자기’의 용법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이를 국어교육에서 교수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 중 연인 또는 부부 이외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에 대한 정밀한 논의로 박정운·채서영(1999)과 정지현(2015)을 들 수 있다. 먼저 박정운·채서영(1999)은 ‘자기’가 일반적인 대명사로 발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사용과 제약, 특성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 ‘자기’의 일반적인 용법은 연인 또는 부부들 사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연인이 아닌 남녀 간이나 남성들 사이에서도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기’가 여성들에게 국한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는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인칭 대명사로서 자기를 사용하는 데 여성성이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25~55세 여성이 성인이 되어 알게 된, 연령이 화자와 같거나 적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여성에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고 하였다(박정운·채서영 1999: 175).

다음으로, 정지현(2015)은 2인칭 대명사 ‘자기’가 문어와 구어 말뭉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핀 논의로, ‘자기’가 출현하는 담화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www.kci.go.kr

맥락 유형	목표 유형	화자	청자	(청자) 서열	친밀도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맥락	협력과제/협력착상	여성	사적인 관계의 이성	동등	强
전문직 맥락	협력과제/협력착상	여성	공적인 관계의 동료·후배 (주로 동성)	동등 또는 약간 낮음	中强
교섭적 맥락	정보제공	여성	직업적 상황에서의 고객	높음	弱

[그림 1] 2인칭 대명사 ‘자기’가 출현한 담화 유형(정지현 2015: 182)

위의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화자 특성으로 성별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 청자 유형은 이 여성 화자가 성인이 되어 관계를 맺은 대상이라는 점이다. 그 관계가 사적인지 공적인지에 따라 청자의 성별과 실제 친밀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정지현 2015: 182).

박정운·채서영(1999)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용 사용정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자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지현(2015)에서는 ‘자기’를 발화하는 화자를 ‘여성’이라고 논의하고 있고, 남성이 ‘자기’를 사용한다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논의 모두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동료 혹은 후배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화에서는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화자가 남성일 때도 ‘자기’가 사용된다. 즉 화자와 청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여성이 여성과 남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발화하는 대화 상황에서도 ‘자기’가 사용되고 있다.

- 스. 김 선생, 여기 자기 족보 있다. (50대 남성 교수가 40대 여성 교수에게)
- 츠. 김 피디, 자기는 마음 수련을 좀 더 해야겠어. (50대 남성 요가 강사가 40대 남성 수강생에게)
- 컷. 김 대리, 그 업체는 자기가 좀 방문해. (40대 남성 사장이 30대 남성 부하 직원에게)

위의 대화 사례에서 보듯이,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들이 사용하던 ‘자기’를 남성들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 언어 사회에서 여성에 의해 채택된 ‘자기’의 새로운 용법이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화자와 청자가 여성일 경우에 사용되던 ‘자기’가 남성일 경우로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사용가능하다고 용인되는 연령에 있어서도 확대의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사례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 모임에서 아이들의 엄마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40대 여성에게 ‘자기’라고 부르자 그 모임의 가장 연장자가 ‘자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제보자: 40대 여성)

위의 사례에서 ‘자기’ 사용과 관련한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해당 언어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지만 화자가 이러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용법 확대로 볼 가능성도 있다. 화자가 ‘자기’의 용법을 잘못 알고 사용하였다기보다 친밀감의 표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자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2인칭 대명사 ‘자기’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자기’에 대한 언중들의 태도는 어떤지를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자기’의 용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설문조사 결과

3.1. 설문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언중들의 ‘자기’의 사용 양상과 ‘자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화자들로 제보자를 제한한 것은 ‘자기’가 지역적으로 실현양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른 ‘자기’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남부 지역보다 중부 지역에서 ‘자기’가 더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자의 인상적인 관찰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을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7월 한 달 동안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도구를 이용해 진행되었다.³⁾ 응답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 남녀 117명이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66명(56.4%), 여성 51명(43.6%)이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는 20대: 9명(7.7%), 30대: 29명(24.8%), 40대: 69명(59%), 50대: 7명(6%), 60대: 3명(2.6%)로, 30대와 40대가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30대와 40대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연구 대상인 ‘자기’가 대체로 30~40대 이상에서 사용되는 대명사이므로, ‘자기’의 실현 양상이나 ‘자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문 문항은 다음의 16개이다.

3) 구글(Google)사(社)에서 제공하는 구글 독스(Google Docs)의 ‘양식(forms)’ 기능은 본래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안된 것이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설문 조사에 비해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이어서 학술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하성욱 2014: 771). 구글 독스의 설문조사 도구가 가지고 있는 조사의 경제성과 결과 처리의 효율성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이 점점 늘고 있다. 구현정(2014), 하성욱(2014) 등 언어학적 연구에서도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표 1〉 설문 문항

설문 항목	설문 문항
1. 응답자의 인적 사항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나이
	응답자의 출신지역
2. '자기' 사용 인식	'자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대화상황이 어떠했는가 (화자 및 청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
	'자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3. '자기' 사용	'자기'를 사용하는가
	'자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대화상황에서 사용하는가
4. '자기'로 불리는지 여부	'자기'로 불리는가
	'자기'로 불린다면 어떤 대화상황에서 불리는가
	'자기'로 불렸을 때의 응답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5. 남성의 '자기' 사용	남자가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남자가 '자기'를 사용한다면 어떤 대화상황에서 사용하는가 (청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
	남자가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응답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6. '자기'의 사용과 연령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대화상황은 어떠했는가(화자 및 청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7. 친밀도와 대화상의 효과	상대를 '자기'라고 부르려면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자기'를 사용하면 어떤 대화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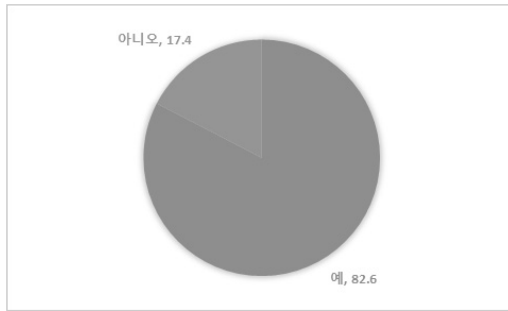
설문조사를 설계할 당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변인은 연령과 성별이었으나 전체 응답자 중 40대가 59%를 차지하여, 연령대에 따른 응답자를 골고루 확보하지 못해 연령에 따른 분석은 할 수 없었다. 이는 인터넷을 활용한 설문조사의 특성상 대상 집단을 변인별로 미리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⁴⁾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4) 조사 대상을 변인별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인터넷 설문조사의 단점이기도 하면서 본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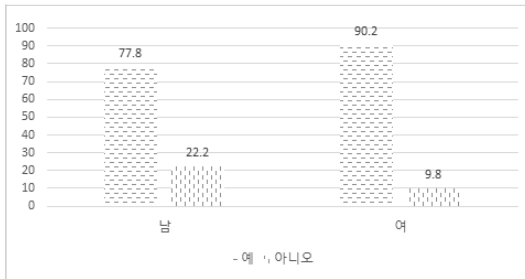
응답자 전체 경향성과 성별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응답자 전체의 경향성과 성별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로 제시한다.⁵⁾

3.2. ‘자기’ 사용 인식

‘자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⁶⁾에,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 ‘자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그림 3] ‘자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성별

- 5) 성별, 연령 등의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검정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초적인 자료 조사 차원에서, 백분율을 제시하여 ‘자기’의 사용 및 화자의 평가와 관련한 경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6) 질문1]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상대를 ‘자기’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의 82% 이상이 ‘자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부부 및 연인이 아닌 관계에서 사용되는 ‘자기’가 언중들에게 친숙한 용법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이러한 용법에 더 친숙하고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가 사용된 대화상황⁷⁾에 대한 남성 41명, 여성 43명의 응답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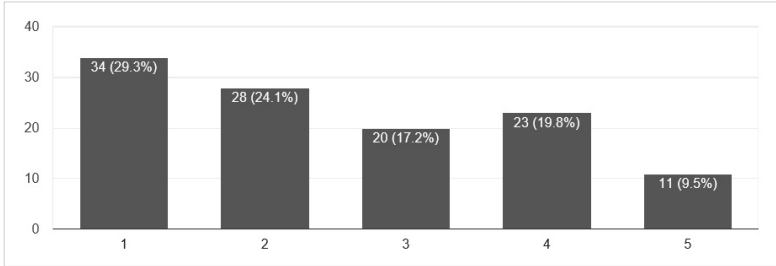
〈표 2〉 ‘자기’를 사용하는 대화 상황

남성	여성
직장 동료들끼리	동년배 여자끼리
직장에서 남자 동료끼리	50대 남성이 40대 후배에게
30대 이상의 여성들 사이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친구인 40대 남성들끼리	친한 사이의 직장 선후배 사이, 직장 동료들 사이(남녀 모두)
직장에서 상사(남녀)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동료 사이에
남성 연장자가 연하자에게	막 친분을 쌓기 시작한 여성 학부모들 사이
사회친구인 40~50대 남성들끼리	친구인 30~40대 여성들 사이
남자 선배가 후배에게	여성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연상의 남성, 여성이 연하의 동성에게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친근하게
연상의 여성이 연하의 남성에게	친밀하지는 않지만 간헐적 접촉이 있는 가게 주인과 손님 사이
사회에서 아는 연상 남성이 연하 남성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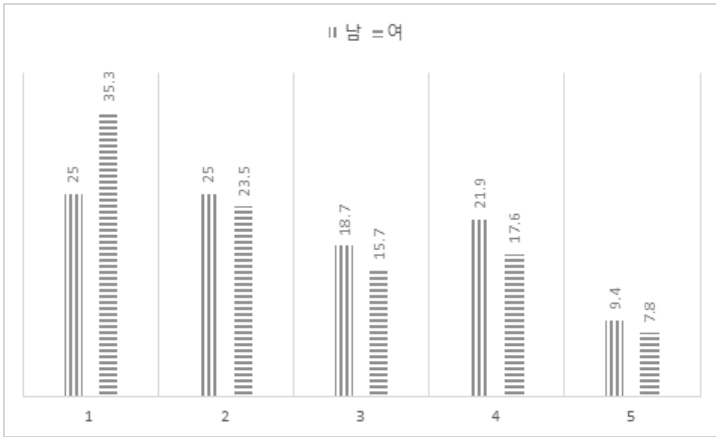
위의 응답을 보면, ‘자기’는 대체로 친분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사이에서, 동년배이거나 동료 또는 연상(상급자)이 연하(하위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성인이 되어 관계를 맺게 된 사이에서 사용된다. ‘자기’가 사용되는 대화 상황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자기’를 발화하는 화자의 성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자기’를 발화한다는 응답이 남성의 경우 전체 응답 41개 중 15개인데 반해, 여성은 43개 중 2개에 불과하다. 즉 남성들은 ‘자기’를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은 ‘자기’를 남성 중 소수만이 사용하고 주로 여성이 사용한다고 한 것이다.

7) 질문2)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상대를 ‘자기’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사용했습니까? (나이, 성별, 둘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감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부감이 없다’와 ‘거부감이 든다’ 사이의 5점 척도 중 고르게 하였다.⁸⁾



[그림 4] ‘자기’ 사용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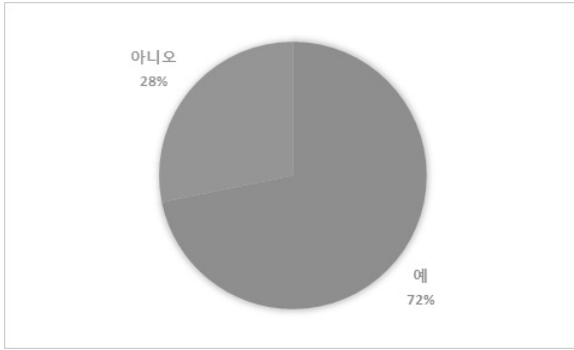
[그림 5] ‘자기’ 사용에 대한 태도-성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거부감이 전혀 없다’에 해당하는 1번 응답물에서 남녀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아,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거부감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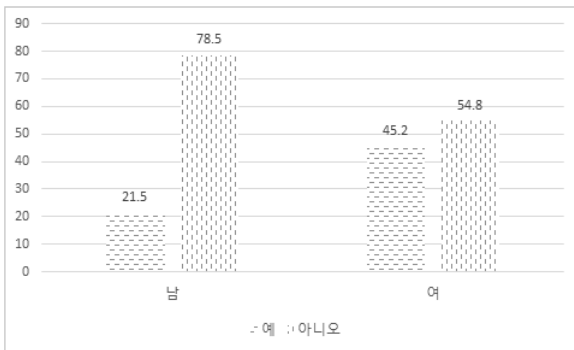
8) 질문3)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상대를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없다 1 2 3 4 5 거부감이 든다.

3.3. '자기' 사용

응답자 본인이 '자기'를 사용하는지 질문한 결과,⁹⁾ 전체 응답자의 72%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 '자기' 사용 여부



[그림 7] '자기' 사용 여부-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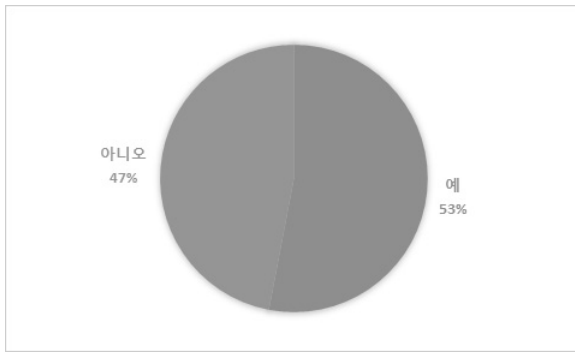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를 사용하는 정도가 2배 이상 높았다. '자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절반에 조금 모자라는 정도였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21% 정도에 그쳤다. 이를 통해 '자기'가 여성과 남성 모두 발화

9) 질문시 답변자님은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사람에게 '자기'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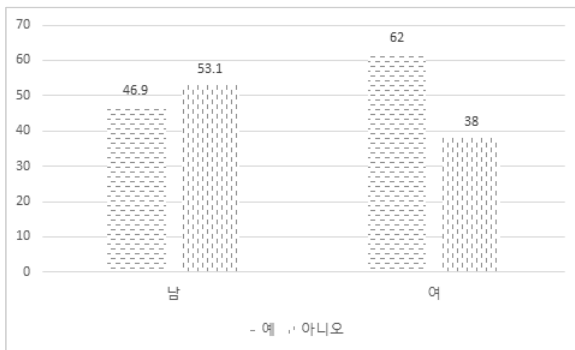
하기는 하지만 여성에게서 그 발화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3.4. '자기'라고 불리는지 여부

응답자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질문¹⁰⁾에,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자기'라고 불리는 정도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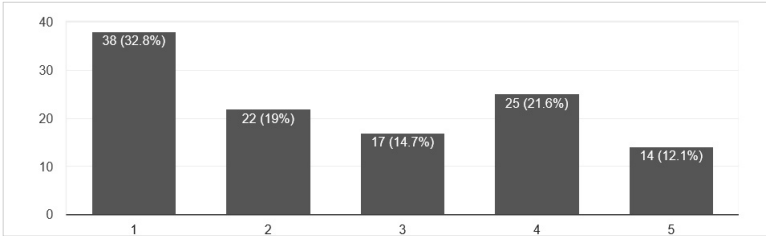
[그림 8] '자기'로 불리는지 여부



[그림 9] '자기'로 불리는지 여부-성별

10) 질문6]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데, 답변자님을 '자기'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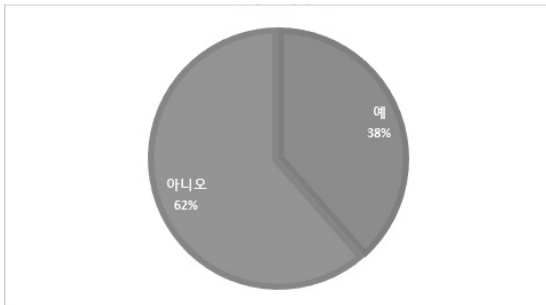
다른 사람에게 ‘자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감정적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¹¹⁾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자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그림 10] ‘자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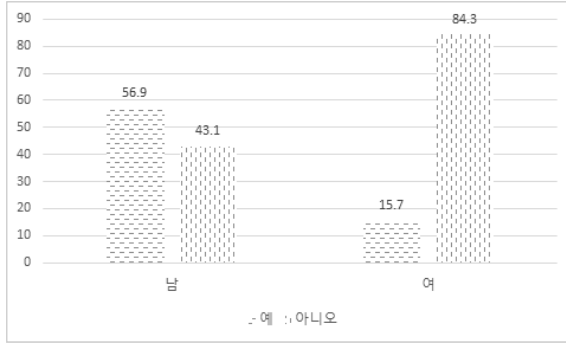
3.5. 남성의 ‘자기’ 사용

남성 화자가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¹²⁾ 38%가 들어보았다고 응답하여, ‘자기’가 여성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남성의 ‘자기’ 사용을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 11) 질문8]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누군가 답변자님을 ‘자기’라고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거부감이 없다 1 2 3 4 5 거부감이 든다.
- 12) 질문9]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 12] 남성의 '자기' 사용을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성별

남성은 56% 이상이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데 반해 여성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은 '자기'를 주로 여성이 발화하고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남성은 화자나 청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대화상황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
- 직장 동료 사이(성별 관계없이)
 - 20대 남자 동료 사이
 - 남자 상급자가 남자 하급자에게
 - 남자 상급자가 20, 30대 남녀 부하 직원에게
 - 60대 연상 남성이 연하 남성에게
 -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 40대 남자 손님이 30대 여성 직원에게
-

이상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친분을 쌓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직급이나 연령상 상위가 하위자에게 또는 동료들끼리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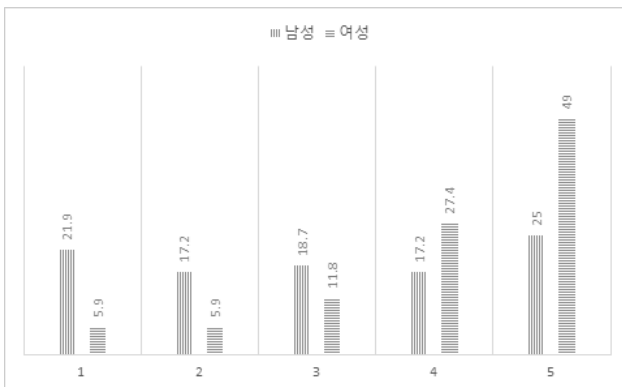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대화상황에 대한 한 응답자의 구체적인 답변을 살펴보자.

13) 질문10]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사용했습니까? (나이, 성별, 둘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40대 남자 둘, 1살 차이, 같은 업종 동료인데 1살 차이지만 친구로 지내기로 함, 오래된 관계고 아주 친함. 그러나 1살 어린 남자는 대화 중 말을 놓지만 상대방을 지칭할 때 이름을 부르려니 어색하고, “니가~” 이런 말하려니 그래도 1살 어린 데 좀 그렇고, 그렇다고 “당신이~” 이런 말은 거리감 있어 보이고.. 결국 “○부장~ 이거는 자기가 좀 해 줘”, “자기, 내일 거기 갈 거?” 등으로 말함.. 즉, 사회에서 만난 사이에서 친하긴 한데 깨놓고 말 놓기는 좀 그런 관계에서 ‘자기’라고 부르는 걸 봤음..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존대해서 호칭, 지칭하기 애매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경우였음.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대화 상황에 대한 40대 남성 응답자의 답변을 보면, 직장 동료인 남성들 사이에서 이름을 부르기 어렵고,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자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크지는 않지만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사이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자기’의 용법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질문한 문항¹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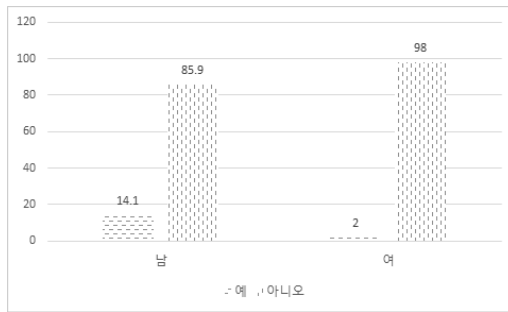
[그림 13] 남성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

14) 질문11]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성의 답변은 ‘거부감이 없다’와 ‘거부감이 든다’ 사이의 5점 척도에 비교적 고루 분포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매우 거부감이 든다’에 해당하는 5번의 응답률이 여성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남성은 수용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1번과 2번의 응답률이 39.1%이지만 여성은 11.8%에 그친다. 이를 통해 남성이 사용하는 ‘자기’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¹⁵⁾ 이는 여성이 ‘자기’가 여성 사이에서 사용되는 대명사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남성의 ‘자기’ 사용을 ‘이상하게’, ‘적절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3.6. ‘자기’ 사용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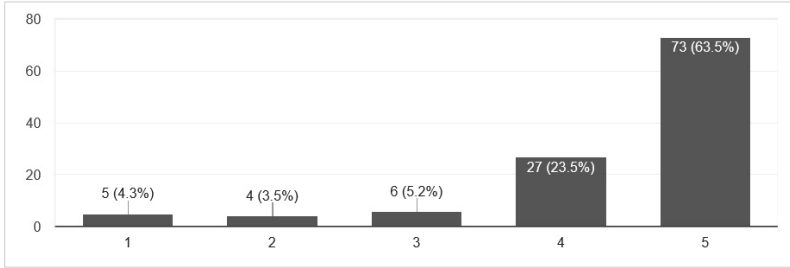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¹⁶⁾ 전체 응답자의 91%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여,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성별

- 15) 이러한 성별에 따른 평가의 차이는 실제 응답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강하게 보였고, 필자에게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 16) 질문12)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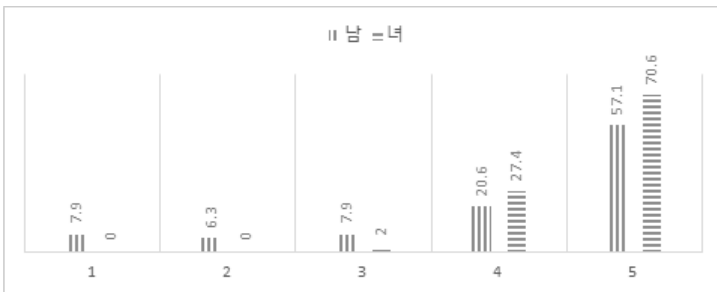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¹⁷⁾



[그림 15]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이 소수이고 대체로 '거부감이 든다'는 비수용적인 답변을 하였다. 실제 발화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또는 하위자가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상위자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그 집단에서 제지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거부감이 없다'는 수용적 태도를 보인 경우가 전혀 없었지만 남성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거부감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자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청자와 화자의 관계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 폭이 넓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림 16]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성별

17) 질문14)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7. '자기' 사용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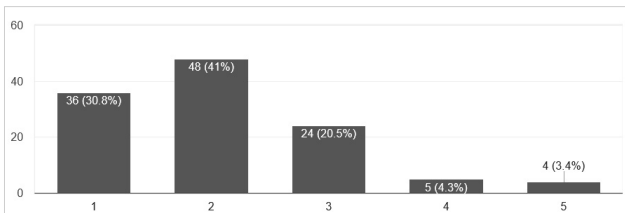
'자기'가 대화상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¹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자기' 사용의 대화상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친근감의 표현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 재미있는 대화 분위기 업무 외 사적인 유대감 조성 친한 사이에서는 친밀감 표현 상대방을 배려함 상대방에 대한 호감 표현 명령이나 요청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 더 친해지고 싶다는 느낌 표현	안 친한 사이에서는 어색한 분위기 서먹한 사이에서는 더 멀어지는 느낌 하대하는 느낌을 받음

대체로 '자기'를 사용하면 친밀감과 친근함을 표현할 수 있고, 대화 분위기를 유쾌하고 부드럽게 조성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친한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자기'를 사용하면 어색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이 '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친밀도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자.¹⁹⁾



[그림 17] '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는 친밀도의 정도

- 18) 질문16)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자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화할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9) 질문15)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상대를 '자기'라고 부르려면 둘 사이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친밀하다 1 2 3 4 5 전혀 친밀하지 않다

아주 친밀한 사이라고 한 응답(1번), 친밀한 사이라고 응답한(2번) 경우가 대다수로, 대체로 아주 친밀하거나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 ‘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친밀하지 않은 사이에서 ‘자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상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응답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자기’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자기’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러한 관계가 아닌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자기’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용법은 여성 화자가 동년배 여성이나 하위자 여성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한다.

넷째,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수이고, 이러한 ‘자기’의 용법은 대체로 비수용적이다.

다섯째, 남성과 여성이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용법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표 4> 남성과 여성이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용법

응답자 성별	남성	여성
화자-청자		
화자와 청자의 성별	여성 → 여성 여성 → 남성 남성 → 여성 남성 → 남성	여성 → 여성 여성 → 남성
화자와 청자의 나이	연상자 → 연하자 연하자 → 연상자(낮은 수용)	연상자 → 연하자

‘자기’를 발화하는 화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은 화-청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여성 화자가 사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특히 여성 화자가 여성 청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연하자 → 연상자 용법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지만, 남성은 연하자 → 연상자 용법에 여성보다는 거부감이 낮다.

여섯째, 주로 여성 사이에서 사용되던 ‘자기’가 남성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부부나 연인 관계가 아닌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자기’를 최근에는 남성들도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어,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의 새로운 용법이 남성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자기’의 용법 확대와 여성의 역할

‘자기’의 용법 확대와 관련하여, 20여 년 전의 연구인 박정운·채서영(1999)은 2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하면서, 이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던 ‘자기’가 남성에게로 확장되는 시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서만 쓰이던 대명사에서 일반적인 대명사로 발전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의 발달에 대해, ‘자기’가 부부나 연인들 사이에서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하였다. 그 이후 여성 대화자들 사이에서 ‘자기’를 부부나 연인 이외의 사이에서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게 되었고, 아직 사용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남녀 혹은 남성 대화자들 사이의 2인칭 대명사로 발달하고 있다고 하였다(박정운·채서영 1999: 166).

대구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자기’가 현재 남성들에게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자기’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사용되던 것에서 그 외의 관계에서도 2인칭 대명사로 폭넓게 사용되는 ‘자기’ 용법 변화는 여성이 시작하여 남성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여성에게서 먼저 채택된 변화를 남성이 수용하여,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형태가 남성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기’의 용법 확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에서 그 외의 관계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던 것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사이에서도 사용되어 청자와 화자의 범위 또한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여성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성이 개신자로서 언어 변화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Labov(2001)는 언어 변화에서 성의 역할을 지배하는 두 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²⁰⁾

〈원리 1〉 위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above)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위세형(prestigious form)을 사용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비표준형을 더 자주 사용한다.

〈원리 2〉 아래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below)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개신형(innovative form)을 더 자주 사용한다. 즉 이 변화에서 여성은 대부분 변화의 주역이다.

〈원리1〉은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이 잘 알고 있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로 실현되는 변이형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변화로 인해 실현되는 변이형이 낙인형일 때 여성들이 그러한 낙인형을 회피하는 데 반해, 남성들은 낙인형인 비표준형태를 여성보다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진행 중에 있는 우세언어변화(prestige innovation)를 주도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주도는 언어변화의 확산(diffusion)과

20) 원리 1과 2의 ‘위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above)’, ‘아래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below)’는 화자의 의식(speaker's conscious awareness)의 위와 아래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 언어공동체의 화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일 때는 화자의 의식 아래에 있는 것이고, 어떤 변화를 언어공동체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화된 형태가 낙인형이 되면 이러한 낙인화(stigmatization)를 통해 화자의 의식 위에서의 변화가 시작된다(Labov 1972: 178~179).

연결된다. <원리2>는 화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변화, 즉 낙인형으로 인식되지 않는 변화와 변이형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빈번하게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상하류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필라델피아 연구에서 Labov는 이들 과정들을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시켜 동질집단과는 매우 긴밀한 교류를 하지만 외부 사회와는 소원한 관계를 가지는 상하류 계층의 여성들이 변화를 선도한다고 보았다(Labov 2001; 박영순 2004에서 재인용).

위의 두 원리는 남녀가 모두 언어변화를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Labov는 ‘성모순(gender paradox)’이라고 하면서 ‘합치(conformi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여성은 분명히 규정된 사회언어학적 규범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더 잘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덜 따른다는 것이다. 어떤 상하류 계층 여성의 기본적인 불합치는 그들의 공동체에서 언어변화의 선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두 원리는 여성이 언어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Labov 2001: 293~294; 박영순 2004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변화일 때, 즉 변화와 관련된 변이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변이형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일 경우에는 여성이 개신자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이 해당 지역 사회에서 낙인형이라고 생각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표준형을 선호하지만, 개신형이 비표준형이라고 하더라도 개신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는 언어 개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여성에 의해 도입된 변화는 남성에게까지 확산되어 언어변화가 진행되게 된다. 여성은 언어 변화에 있어, 낙인형은 회피하면서, 개신형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일 경우에는 그 개신을 채택해 언어변화까지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²¹⁾ 이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이 채택한 개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Milroy(1992)가

21) 한 언어공동체에서 여성이 언어변화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로 홍미주(2011, 2013)는 대구지역어에서의 오 → 우 실현을 들었다. 이 논의들에서 대구 지역 여성 화자들이 중부방언에서 실현되는 ‘오 → 우’를 대구라는 언어공동체에 도입하였고, 이를 남성에게까지 확산시켜 젊은층의 남성들도 오 → 우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일단 여성에 의해 채택된 변화는 확산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단순히 우세형태(prestige form)를 선호한다기보다 사실상 우세형태들을 만들어 낸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기’의 경우에도, 여성이 먼저 부부나 연인이 아닌 사이에서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새로운 ‘자기’의 용법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자기’의 용법이 해당 사회에서 낙인형이 아니었고, 친밀감 표현 및 확보라는 대화상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였다. 즉, 여성에 의해 채택된 ‘자기’의 일반적인 대명사로서의 용법이 언어공동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친밀감 표현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점점 확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언어 태도와 친밀감 표현 방법으로서의 사용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채택된 ‘자기’의 새로운 용법을 남성 또한 수용하여, ‘자기’의 새로운 용법이 남성에게까지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부부나 연인이 아닌 사이에서 사용하는 2인칭 대명사로서의 새로운 ‘자기’의 용법에 주목하고, ‘자기’의 사용과 태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조사의 차원으로 대구 지역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의 용법과 ‘자기’에 대한 화자들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자기’의 새로운 용법 확대에 여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러한 관계가 아닌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 ‘자기’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용법은 여성 화자가 동년배 여성이나 하위자 여성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를 발화하는 화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자기’를 사용한다.

넷째,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수이고, 이러한 ‘자기’의 용법은 대체로 비수용적이다.

다섯째, 남성과 여성이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기’의 용법에 차이가 있다. ‘자기’를 발화하는 화자의 성별에 있어, 남성은 화-청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기’를 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지만, 여성은 여성 화자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식한다.

여섯째, 주로 여성 사이에서 사용되던 ‘자기’가 남성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던 ‘자기’를 최근에는 남성들 또한 사용하고 있다. 이로 보아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의 새로운 용법, 즉 부부나 연인 이외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용법이 여성에게 먼저 채택되었고, 이 개신이 남성에게까지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가 주로 여성 사이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남성 또한 ‘자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자기’ 사용 양상과 태도에 있어 여성과 남성 간에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로서의 ‘자기’의 새로운 용법을 도입하고 확산하는데 여성의 역할을 논의한 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자기’ 사용과 관련된 기초적인 자료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져 ‘자기’가 실제로 발화되는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로서의 ‘자기’의 용법을 구분하여 논의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은 본 연구의 한계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 ‘자기’의 실현과 관련된 논의를 더 세밀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연임(1996), <이인칭 대명사의 화용적 의미 기능에 대하여>, 《어문연구》 28, 5~17, 어문연구학회.
- 구현정(2014), <장모-사위 대화의 실태 연구 -사위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화법

- 연구》 26, 205~232, 한국화법학회.
- 김미형(1995), 《한국어 대명사》, 한신문화사.
- 박영순(2004), 〈사회언어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언어학》 12(1), 123~147,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정운·채서영(1999), 〈2인칭 여성 대명사 자기의 발달과 사용〉, 《사회언어학》 7(1), 151~178, 한국사회언어학회.
- 송병학(1982), 〈이인칭대명사의 의미 분석〉, 《언어》 3, 119~139,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 양영희(2006), 〈인칭대명사의 기능 변화 유형과 원인〉, 《우리말글》 38, 59~83, 우리말글학회.
- 유송영(2002), 〈‘호칭·지칭어와 2인칭 대명사’의 사용과 ‘화자-청자’의 관계: 국어 청자 호칭·지칭어의 사용과 체계(1)〉, 《한국어학》 15, 121~141, 한국어학회.
- 이익섭(1994/2000), 《사회언어학》, 민음사.
- 정지현(2015), 〈구어에서의 2인칭 대명사 ‘자기’의 사용과 문법 교육에서의 적용〉, 《한국어학》 68, 161~188, 한국어학회.
- 하성욱(2014), 〈문법 진단 평가를 위한 구글 독스(Google Docs) 활용 방안 연구-‘양식(forms)’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9(1), 767~785, 국어교육학회.
- 홍미주(2011), 〈대구지역어의 음운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홍미주(2013), 〈변항(오)의 변이형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방언학》 18, 325~367, 한국방언학회.
- Labov, W. (1972).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bov, W. (2001).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Volume II. Social Factors*. Cambridge: Blackwell.
- Labov, W. (2003). “Driving force of language change”. 《한국어학》 18, 149~189, 한국어학회.
- Milroy, J. (1992). *Linguistic Variation & Change*. Blackwell. (정영인 외 공역(2000), 《언어변이와 변화》, 태학사).
- Park(1992). “A Recent Development of Caki, a Second-Person Pronoun in Korean.

Locating Power”. *Proceedings of the Second Berkeley Women and Language Conference*
2, 489~500.

홍미주

mibong78@hanmail.net

논문 접수일: 2019년 7월 31일

논문 심사일: 2019년 8월 11일~9월 4일

게재 확정일: 2019년 9월 5일